

전남 동부권

순천만 무인케도택시 논란

市, 습지센터~문학관 4.5km '포스코형 경전철' 추진 시민단체 "특정기업 독점...손실 분담 협약 문제" 반발

순천시가 추진중인 '순천만 무인케도 택시(PRT·소형 경전철)사업'에 대해 순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순천시는 지난 2009년 포스코와 MOU 체결 후 사업비 610억원을 들여 국제 습지센터에서 순천만문학관까지 4.5km 구간을 운행하는 소형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포스코가 모든 투자비용을 부담하고 30년간 운영한 후 순천시에 기부한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도시계

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취득하면 다음달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남 동부지역사회연구소는 "순천만 PRT사업은 무인케도택시를 순천시가 특정 대기업에 독점노선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운영이 시작되면 관광객 수송을 분담했던 택시기사와 버스 종사자의 수입과 일자리가 줄어들며 교통체계 완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PRT이용자가 연간 66만6000명이 못할 경우 순천시는 사업자(포스

코)와 손실 분담(투자위험 분담금)을 하기로 한 협약에 대해 PRT이용자는 연간 40만명을 넘지 못할 것이라 분석하고, 필수 공익시설이 아닌 민간 관광수송수단에 20년 동안 시민의 세금이 소모될 우려가 매우 큰 부당한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전남 동부지역사회연구소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근거없고 무책임한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 PRT사업은 미래친환경 교통수단을 통해 순천만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광객이 순천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고 일축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광양항 세계 3대 해운 얼라이언스 모두 취항 GA 중~일~미 등 주 1회 운항

광양항에 세계 3대 해운 얼라이언스(Alliance)가 모두 취항한다. 광양 컨테이너부두공단과 여수 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인 그랜드 얼라이언스(Grand Alliance)가 17일 광양항에 첫 입항했다. 이에 따라 뉴월드얼라이언스, CKYH 등 세계 3대 해운 얼라이언스가 모두 광양항을 취항하게 됐다. GA는 글로벌 메이저 컨테이너 선사인 NYK, Hapag Lloyd, OOCL 등으로 구성된 해운 얼라이언스이다. 이번 광양항 노선에는 4200TEU급 선박 6척이 투입돼, 북중국(칭다오)~광양~일본~미국 서안(LA, 오클랜드)을 주 1회 운항한다. 해운 얼라이언스는 개별 선사 단독

으로 세계적 운송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선사 선박이 연합, 운송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통상 2~4개 선사 선박으로 구성된다. 이번 신규 기항으로 광양항지역 수출입 화물뿐만 아니라 북중국~미국 서안간의 환적화물이 연간 4만TEU 창출될 것으로 예상돼 광양항 물동량 증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동현 여수항만청장은 "이번 그랜드 얼라이언스 서비스 개시는 지난해 209만TEU를 달성한 광양항의 지역에 대한 국내외 선사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완공 등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곡성군의 '소통행정'

민선5기 출범 1년 주민 토론회로 군정 진단

민선 5기 출범 1년을 앞두고 곡성군이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주요 시책을 점검,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곡성군은 17일 보건·의료와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까지 13개 실·과별로 군정 진단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해당 공무원은 물론 농업 등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군정 주요시책과 공약사항을 점검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부서별로 주요 현안 사업 추진현황 등을 설명하고 전문가와 주민들의 자문과 의견을 청취한 뒤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17일 농업기술센터(상업농 육성, 이대호 좋은가)와 보건·의료원(지역 보건

료 발전 방향)을 시작으로 ▲19일 경제과(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20일 건설과(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방향) ▲24일 문화과(곡성 문화 발전 방안) ▲26일 산림과(특화작물 개발을 통한 소득 창출)·행정과(조직개편 이후 업무 효율성 향상) ▲27일 복지과(지역복지 발전 방향)·환경과(환경시책 활성화 방안) ▲30일 관광과(관광 상품별 문제점 진단) ▲31일 민원외(도·농 교류 활성화) ▲6월 1일 기획실(주요 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요 시책 추진과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군민과의 공감대를 넓히고 주민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종기자 kjkim@



엑스포기 365일 '펼켜 펼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를 1년여 앞둔 가운데 여수시 여천동 주민센터 직원과 주민들이 지난 12~13일 엑스포기를 달고 있다. 여천동은 여천전남병원부터 롯데마트 여천점에 이르는 1.2km구간을 '엑스포기 365일 달기 거리'로 지정했다. <여수시 제공>

광양제철, 광양~日 카페리 활성화 돕기

철강제품 본격 선적 수출

광양제철소 철강제품이 광양비치호에 선적돼 일본으로 나간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POSCO와 광양해리(주)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본 관동지역(시모노세키·모지 지역)으로 수출하는 코일(coil) 제품을 광양비치호를 통해 시험 운송을 시작했다. 지난 1월 23일 광양~일본 시모노세키 항을 첫 취항한 광양비치호는 주 3항차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객수송에 광복할만한 성과를 거두던 중 뜻하지 않은 일본 동북부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폭발 등으로 여객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POSCO 코일제품의 선적은 전남도, 광양시, 한국컨테이너 부두

공단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의 합작품이다. 18일 1차 시험운송을 시작으로 수차례의 테스트를 거쳐 수송과정의 운송품질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본격적인 운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코일제품 158t(10 coil)을 수송하게 되는 1차 시험운송에서는 수송 모든 과정에 POSCO, 대한통운, 일본 하관해륙운송 및 광양해리 측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중섭 광양해리 대표는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선 POSCO제품을 수송하게 됨으로써 화물운송 능력에 대한 신뢰 회복과 이미지 제고를 통해 카페리 항로의 조기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농협곡성군지부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농협 곡성군지부는 지난 15일 지역 다문화가족 2가정의 모국방문 길을 열어 줘 호평을 받았다. 이번 베트남을 방문한 가족은 전미경(곡성읍) 씨와 김지혜(옥과면) 씨로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해 총 9명이다. 베트남에서 시집온 이들은 지난 2009, 2010년 한국이름으로 개명했다. 곡성군

지부는 양복 항공료와 가족당 체제비 50만원씩을 전액 부담했다. 이영기 지부장은 "모국에서 가족과 친지들과 행복할 시간을 갖고 오기를 바란다"며 "고향방문이 활력소가 돼 귀국 후 앞으로 행복한 가정 꾸리며 우리나라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종기자 kjkim@

전 북

전주 상·하수도료 18%·91% 오른다

물가대책위 7월부터 적용

전주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상수도 요금을 18.36%, 하수도 요금을 90.9%(가정용 기준) 각각 인상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방안이 시의회에서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t당 580원에서 720원으로, 하수도는 t당 110원에서 210원으로 오른다. 또 일반용(상업시설)은 상수도가 t당 1천180원에서 1천400원으로 11.8%, 하수도는 300원에서 670원으로 123% 인상된다. 상수도의 대중탕용과 산업용은 현행대로 t당 880원, 350원이 유지되고 하

수도는 대중탕용과 산업용이 각각 t당 115원에서 250원으로 117% 오른다. 전주시의 상·하수도 요금은 2007년 2월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면서 실질적인 현실화율이 57%와 31%에 그쳐 매년 500여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이번 요금 인상되면 현실화율은 상수도는 68%, 하수도는 60%가 된다. 맑은물사업소 유급호 소장은 "시민 부담이 늘 수밖에 없지만, 쌓이는 적자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맑은물 공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연남뉴스



"어른 됐어요" '제39회 성년의 날'인 16일 남원시 광한루원에서 200여명의 학생들이 전통방식의 성년식을 가졌다. 이날 성년식은 삼기례와 조례, 수훈례 순으로 전통 성년례를 재현했다. /연남뉴스

순창, 내년 귀리재배단지 100ha 조성

사료작물 자급을 향상

순창군이 한우 고급육 생산능력 향상과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해 귀리 등 사료작물 재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창군은 내년에 귀리 재배단지 100ha를 조성하는 한편 조사료 배합 시설과 기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순창지역 특산물로 '귀리 한우'를 특화하는 물론 상표등록 실시로 사료비 절감과 한우농가 소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자온과 잦은 강우 등 이상기온 발생으로 사료작물의 수확기가 늦어지고 수량 감소와 도복 등으로 사료가격이 떨어지는 등 양질 조사료

생산대책이 시급할 실정이다. 순창군은 사료작물 혼파재배 평가회를 지난 16일 팔덕면 웅산리 시험포장에서 가졌다. 군은 농촌진흥청과 공동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팔덕면 웅산리에 30ha 규모의 시험포를 설치했다. 연구진은 이곳에 보리와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귀리 등 3개소를 조성, 사료작물 혼파 공동 연구사업에 실험을 기울이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사료작물 자급을 향상하는 물론 수입조사료를 대체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겨울철 유류치 활용으로 농경지 이용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 동지 사수 작전

군산 자유무역지역내 공사 현장에서 발견 시공사 안전적 번식위해 공사 중단 배려

공사장의 토사에 매장될 위기에 처했던 '검은머리물떼새'(천연기념물 제326호)가 공사업체의 배려로 번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16일 군산시 소룡동 군산 자유무역지역내 한 공사현장에서 검은머리물떼새 암수 쌍이 발견됐다. 이는 시공사 관계자들이 현장 활용으로 농경지 이용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군산시 철새조망대에 알려 이뤄졌다. 철새조망대 관계자와 회사 측은 합의 끝에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이 끝나는 6월 말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장에서는 검은머리물떼새 암수가 번갈아 알을 품는 모습이 목격됐고, 물떼새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지에서는 알 4개가 발견됐다. 군산시 철새조망대 한성우 학예연구사는 "물떼새가 건설 현장 한



가운데에 동지를 뜯 경우는 이례적"이라면서 "공사장에서 나온 모래가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뉴스 브리핑

전주 '시민 한소리하기 상설 소리판' 운영

전주시와 전주시 평생학습센터는 오는 31일까지 '전주시민 한소리하기 상설 소리판'을 운영한다. 이번 소리판은 지난 16일 금암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시내 청소년수련관과 유아 문화의 집 등 평생 학습기관 14개소와 4개 학교에서 진행된다.

김수현 전주시 평생학습센터장은 "신명나는 상설 소리판에 참여해 세계 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를 목청껏 따라 부르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느껴보는 것도 우리 문화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군산, 새만큼 유역 강살리기 협의회 구성

군산시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새만큼 유역 강살리기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군산시는 지난 16일 시청 상황실에서는 40여명의 기업체, 환경단체, 유관기관, 행정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회의 회사를 가졌다.

협의회 주요 활동내용은 ▲깨끗한 하천 가꾸기 사업 ▲하천 방치 쓰레기 수거 정화활동 ▲농경지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추진 ▲하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다양한 강 살리기 운동 등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김제 농업기술센터 겨울 시설감자 품평회

김제시 농업기술센터는 17일 진봉면 농가포장에서 새로운 겨울 시설감자 적종 품종 평가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는 관내 시설감자 재배 농가와 씨감자 생산업체, 가공업체, 유통회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국립식량과학원 고품질 농업연구센터와 수미 품종 일변도의 겨울철 시설재배 감자들

새로운 품종으로 교체하기 위해 하령, 고운, 서흥, 갈라감자 등 10개 품종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중이다. 이날 평가회는 감자 10개 품종에 대한 모양, 색깔, 수량성 등의 시장성 평가 등을 통해 향후 유망 신품종 씨감자 생산 및 보급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

정읍시, 맞춤형 일자리 '자활사례 조정회의'

정읍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개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사례 조정회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사례조정회의는 ▲수급자의 자립·자활 지원 ▲자활역량평가

및 개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역량 저해 요소 제거를 위한 서비스 연계 지원 등의 역할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자활경로를 제시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